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 성명서(2월 28일) 제49차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개회식에서 “엄청난 사태의 시기... 강력한 리더십 발휘” 촉구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는 강력하고 비전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어떤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보다 이후 전개되는 사건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역사의 방향은 지금 또다시 그러한 “긍정적 급변 지점(tipping point)”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는 갈등과 빈곤을 줄이고 다양한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세상이 발전하였지만, 현재 이러한 노력이 퇴보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이들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2월 24일 목요일부터 지난밤까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집계 기준, 7명의 아동을 포함한 1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부상자도 304명에 달해 총 406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민간인 사상자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공습, 로켓포 폭발물 투하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노인 및 인권 취약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은 지하 시설에서 폭격을 피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42만 2천 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위로 를 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평화와 인권 보호 촉구의 목소리는 국제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며 국제인권법 및 세계인권선언 등 우리가 공동으로 이행을 약속한 책무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앞으로 사흘간 진행될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는 전례 없이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의 일치된 의견으로 맞설 기회가 될 것입니다. 회의를 시작하며 이번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회의 간 의사 결정에 있어 다른 무엇보다 사람과, 그리고 그들의 권리와 열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역사의 흐름이 변화하는 시점은 오히려 인권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통한 평화로운 세상으로 더욱 나아갈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큰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갈등 및 인권의 문제 등 다소 미뤄두었던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는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준수, 갈등 해결, 정의 및 신뢰 회복, 차별 근절, 권리 발전 도모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등 여러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갈등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다만 함께 퇴보할 뿐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통해 종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 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태가 급속도로 전개되면 행동에 대한 선택지가 좁아지고 해결책 강구가 더욱 어려워지며, 우리는 이러한 법칙이 사회 내 문제는 물론 국가 간 문제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내리는 결정은 이후의 사건 전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서 국제법과 인권의 원칙에 맞으며 발전과 안정을 위한 공동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정을 내릴 힘이 있으며, 반드시 옳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현재 상황은 연대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이러한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으며, 서로를 혼란스럽게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 여유 또한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국제사회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려 했던 분들의 노력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제약 없는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촉구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견부터 국제사회의 평화와 국경 보호를 위한 약속을 확인하는 케냐 외 다른 국가들의 의견 등 상호 연결성을 증진 시키는 모든 제안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유행성 전염병으로 점철된 나날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한 발짝씩 멀어집니다. 최근 사무총장께서는 더욱 발전된 다자 기구의 핵심인,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강력한 인권 체계로 운영되는,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약속합니다.

본 회의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논의하며 근본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Bachelet calls for strong leadership at the moment of 'profound gravity'", News and Event, OHCHR (28 Feb)

2.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데이터가 삶을 바꾼다”: 데이터 수집의 발전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

일제 브랜드 케리스(Ilze Brands Kehris) 유엔 인권사무차장은 "우리는 데이터 혁명 시대 한가운데에 살고 있으며, 데이터 혁명은 인권 문제 이해 증진, 진행 상황 평가, 인권 모니터링, 정부, 기업, 개인에 인권에 대한 책임 부여, 지속가능개발 환경 조성 등의 부분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케리스 사무차장의 발언은 UN 통계위원회 연례회의 시기에 열린 "데이터 분야에서의 '불가시적 순환' 끝내기(Count us in: Breaking the cycle of invisibility in data)" 행사에서 나왔다. UN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데이터 수집 과정 중 수집 대상에서 종종 제외되곤 하는 '데이터 수집 소외계층'에 속한 집단의 대표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인간 중심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행사 발표자들은 자발적이며, 합의된, 참여형의 데이터 수집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며 데이터 수집은 신뢰 형성, 소수자 집단의 적극적 참여 등 강력한 보호 장치 등이 기반이 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다. 또한, 이들은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치적 호의(political good-will)'를 꼽았다.

또한 케리스 인권사무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국가가 흩어져 있는 인권 문제 및 소수자 집단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인종, 민족, 성(性), 연령 등으로 데이터들이 나누어지고 흩어져 데이터가 부족한 현상은 주거, 건강, 교육, 형사사법제도 등과 관련한 법 및 정책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숨기는 효과로 이어진다. 데이터 부족 및 흩어짐 현상은 또한 각 인종, 민족 등의 특정 집단이 일상에서 마주하거나 혹은 여러 차별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정책적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사무차장은 "각국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규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 및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흩어진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인권 데이터 분석회(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소속 데이터 과학자 타라크 샤(Tarak Shah) 연구원은 인권 침해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 데이터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샤 연구원은 일부 집단(노숙인, 소수 언어 사용자 등)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던 점, 특정 소수집단의 일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특정 정보들이 인권 데이터 집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샤 연구원은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칙성을 찾아내어 소수자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결국 다른 이들과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며 "(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 침해 및 학대의 규칙성이 조직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현상 발생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소식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 진행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사무국장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이 화상으로 만났다. 해당 회의는 APF의 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Leadership Outreach Programme)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APF 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동안 각 APF 회원기구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서 APF가 조언을 제공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APF 회원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월 20일에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박찬운 상임위원은 국가인권기구들에 대한 전문적 지원 부분에서 위원회와 APF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또한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경우, APF와 위원회 직원 사이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찬운 상임위원은 APF의 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인권 현안을 다루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로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에서 각 회원기구의 임원들은 APF와 현재 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안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국가 간 자유로운 왕래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리더십 연대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 간 여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 전까지 지속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APF는 밝혔다.

출처: News, APF(1월 31일)

3.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소식

아프가니스탄 인권: 아프가니스탄 독립 인권위원회(AIHRC) 위원장 UN 인권이사회에 성명서 송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현 아프가니스탄 인권상황에 우려 표시

샤자드 아크바르(Shahzard Akbar)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12월,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권상황과 관련한 성명을 영상 형식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송부했다. 성명서에서 아크바르 위원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인권이 파국으로 치달았다고 밝혔다. 아크바르 위원장은 또한 위원회가 즉각 처형, 불법 구금 및 고문, 이전 정부 관계자나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한 위협 및 협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 또한 2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려를 표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1월 16일 평화 시위에 참석했던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운동가와 그 가족을 포함하여 총 6명이 납치되었다고 전했다. 탈레반 정권 측에서는 해당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월 1일 현재까지도 이들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샴다사니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불안한 인권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프가니스탄 국민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어 여성인권운동가 실종사건으로 인해 이전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에 대한 임의 체포 및 구금, 고문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OHCHR에서는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샴다사니 대변인은 탈레반에 “인권운동가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인권운동가 납치, 임의 체포에 가담한 이들에게 국제인권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출처: News, APF(2021년 12월 20일) / Media Centre, OHCHR(2월 1일)

4. 유엔(UN) 소식

UN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미얀마 쿠데타 1년,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 행동 필요”

툼 앤드류스 UN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발발 1주년을 지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소개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로부터의 더 강력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더 늦기 전에” 행동해줄 것을 회원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별보고관은 “지금쯤 미사여구를 사용한 성명을 낼 시기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사정권의 무기 및 자금 접근 정당성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의미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군부의 무기 사용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UN은 미얀마에 더욱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의 종류 및 이들의 출처를 밝힌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 전했다.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군부는) 범죄 조직에 가까운 행위를 보이고 있으며, 살인, 고문, 납치, 강제 이동 및 미얀마 국민이 정당하게 소유한 개인 자산을 절도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더 나쁜 점은 (미얀마 군부가) 합당한 처벌을 피하고 있으며 공격의 강도는 점점 거세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몇 달간 미얀마에서의 폭력, 테러, 폭격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힌 앤드류스 특별보고관은 “대규모 체포 및 고문이 자행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미얀마는 국제사회로부터 현재보다 더 큰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또 이러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 및 UN 회원국이 함께 강력한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UN 인권 이사회는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한 현재 미얀마의 인권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2022년 3월 발간할 예정이다.

출처: Media Center, OHCHR(2월 1일)

5. 주요 국제회의 일정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일 시	회의 명
2.28 - 4.1.	제49차 인권이사회
3.3.	제49차 인권이사회 - 우크라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긴급 회의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일 시	회의 명
3/8 - 3/10	2022 GANHRI 연례회의 - 3.8. 집행이사회 - 3.9. 총회 - 3.10. 주제별 회의(디지털 시대에서 국가인권기구 역할)
3.11.	GANHRI 병행행사 - 스포츠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의견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이지현 ljh820@nhrc.go.kr